



보험회사 CEO 간담회 주요 내용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8월 19일 14개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최근 커지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함.

-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위기 시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언급함.
- 또한, 금감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기관 및 개인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하여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힘.

■ 아울러, 간담회 참가자들은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불공정거래 근절,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,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.

-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당부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자산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힘.
- 간담회 참가자들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험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,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실적과 연동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큰 만큼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.
- 양극화 심화 및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나 보험료 인하 등과 같이 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함.
-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,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도 요구됨.

(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결과, 금감원, 8/19)